

인제대 스마트물류학과, 다롄이공대와 스마트물류 전문인력 양성 MOU 체결

도남선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4-04-23 14:49



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가 23일 다롄이공대학교와 스마트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는 23일 다롄이공대학교와 스마트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롄이공대학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위치한 이공계 중심 국공립종합대학으로 학부, 대학원생 4만명이 재학 중이다.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육성제도 회원학교로 선발된 뒤 정부의 각종 지원 속에 급성장했으며 중국 내 대학평가에서 6성급(세계 최고 수준)을 획득한 동시에 30위권 내에 포함되는 등 명문대학교로 부상하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양 대학의 스마트물류 분야 협업을 위한 학생과 교수 간 교류, 공동 컨퍼런스 개최, 핵심 분야 R&D 공동연구 등이다.

김민재 학과장은 “인제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성공적 유치와 운영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며 “다렌이공대학은 라오닝성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특히 이공계열 분야 R&D 역량이 매우 뛰어난 대학이다. 다렌시는 해안에 인접해 항공, 항만, 철도가 지나는 트라이포트이자 인구 750만명의 대도시로 물류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대학 간 교류에서 나아가 김해시와 다렌시의 협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렌이공대학교 경제경영대학장 신예 교수는 “김해시는 다렌시와 매우 긴밀한 관계이며 김해와 부산은 지리적으로 산업구조적으로 다렌시와 매우 비슷해 양 도시, 양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제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지원하며 올 7월에 있을 물류, 교통 분야 국제컨퍼런스도 참석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